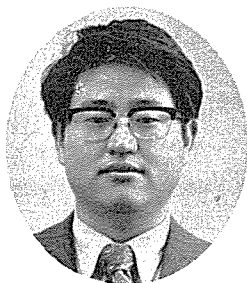


과연 있어 왔나?



나의 提言

최 동 식
(고려대학교교수)

명감에 사로잡힌 과학행정부처의 독려가 실감 있게 여지껏의 수혜 과학기술인들에게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. 다시말해 돈 들인 만큼의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매우 당연한 요청이다.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룩에 성공한 과학기술자들에게 공중급유를 하여 장거리 항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있다.

그러나 이룩한 과학기술호가 정상고도에 오르기전에 과도한 항속을 기대해서는 곤란하다. 극단적인 비유로, 자칫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채 크기도전에 배를 가르느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. 세계 선진 각국의 과학기술진전속도를 의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초조해한다고 좋은 일도 없다.

과학기술인이라 해서 무조건 돈주고 시간주고 재촉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? 잘 설계되고, 꼼꼼하게 조립된 기계나 다름 바 없이 단추누르는 대로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면 아마도 그렇겠다. 그러나 과학기술인도 인간인 이상 합리성, 효율성, 공익성 추구에 매진하다 보면 약간의 회의가 생기게 된다. “왜?”에대한 해답과 “어떻게”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닐 때 이런 회의는 더욱 심각하다.

특히 이력저력 과학인, 기술인으로 젊은 시절을 지내다 나이들어 한가해진 분들의 물질적, 정신적 환경에 생각이 미치면 허탈감마저 들게 된다.

이제 과학기술인들도 가치관을 지닌 살아있는 사람임을 알릴 때가 온 것 같다. 가치관의 정립 없이 과학의 일선에서 교육, 연구, 개발, 생산, 행정의 업무에 시달리다가 생각할 틈도 없이 한창 좋은 때 다보내고 폐품처럼 버려지고 나서야 들떴던 옛날과 젊음과 날마다 새로 와지

새해들어 과학기술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.

서서히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 “과학기술”호에 가속명령이 떨어진 것이다. 힘찬 비상의 사

과학기술인의 가치관 !

는 과학기술진전이 바로 눈앞에서 어릿거릴 뿐
손이 닿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보통이다

사고나 행동의 주체인 “나”가 “우주”의 중심
이다. 내가 있고 나서야 남이 있고 우리가 있고
“우주”가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이니까. “나”
를 위주로한 가치관은 쉽게 선다. 즉 내키는 일
을 하면된다. 싫다면 평양감사도 그만이요, 좋
으면 얽은 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 했다.

그러나 사람이 점승과 구분되는 점은 행동규
범이나 기준으로 좋고 싫은 것 이외에도 옳고
그른것, 착하고 나쁜것까지 포함시켜왔다는
데서 나타난다. 여기에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
판단주체는 우선적으로 나 이지만 “누구”의 입
장에서 옳고 그르냐는 바로 “우리”를 위주로 해
야만 한다. “우리”의 범주를 집, 학교, 고향, 나
라, 지구로 나뉘 본다면 가족, 동창, 동향인, 국
민, 인류의 일원으로써 “나”를 발견하게 된다..

“우리”를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인이 아닌
“자연과학인”으로 구분지을 수도 있다. 이 글의
주제는 여기서 부터이다. 즉 과학기술인입장
에서의 우리들에게 옳은 일중에서 마음 내키는 대
로 골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만일줄 알았는데 가
끔 난처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.

우리에게 옳은 일이 과연 우주의 질서, 조화
특히 우리의 범주 밖에 있는 남들에게 미치는
영향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안된다는 점
이다. 제품생산가를 줄이려다 환경을 오염시킨
다거나, 선생들의 교권만 위하다 학생들의 교육
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되겠다는 이야기이다.

그래서 “공장”을 “사회”로, “교직자”를 “교
육계”로 우리의 범위를 넓히다보면 “나”를 비
롯한 “가족”에 달갑지 않은 영향이 올 수도 있
다. 혹은 기업이나 학교가 경영난에 부딪쳐 문
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.

우리의 범위를 민족으로 넓혔던 독립운동을
하신 지사들은 민족전체는 위하셨지만 가족들
은 험벗고 굶주리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.

또 인류 번영과 세계평화만을 외치는 나라란
무력국가에 병합되기 십상이다.

현명하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
살피어 가치관을 설정해야지 막연히 좋고, 옳고,
착한것만 고르다간 큰코 다치는 현실이다. 따지
다 따지다 어렵고 귀찮아지면 사람들은 그냥 내
키는 대로 결정해 버리고 만다. 이때 평소의 사
람 됨됨과 교양이 나타나게 된다.

그런데 불행히도 한국의 과학기술인들에겐 대
학과정에서 과학사, 과학철학등 과학기술인이
갖추어야될 소양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질 않
다. 그래서 현대인류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이
차지하고 있는 비중도, 앞으로 어떤식의 발전
이 올런지 예측도 뉘우침 없는 삶을 영위하기
위한 기획도 알 바없이 나날을 지내게끔 되는
과학기술인이 늘어나는게 아닌가 싶다. 그래서
과학언론, 과학평론, 과학저술, 과학출판, 과학
강연등의 활동은 필요한 것이지 특정인물의 선
전을 위해 쓰이라는 것은 아니다.

새해들어서 더욱 절실히 제언하는 바는 과학
기술인들이 자긍심과 뚜렷한 가치관을 지닐 수
있도록 (1) 성과위주에다 분위기 조성까지 결들
인 과학행정을, (2) 기초, 응용에다 교양까지 결
들인 과학교육을, (3) 보도에다 해설, 논평까지
결들인 과학언론을, (4) 교과서나 수필에 그치
지 않는 과학교양서적, 집필의 해로 여겨주십
사는 것이다.

태지해를 맞아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것 같
지만, 언젠간 닥칠 과학기술인의 가치관 정립
시기를 각자 앞당겨 보자는 부탁은 어찌면 너무
늦은 하소연이 아닌가도 싶다.